

한강 “소설 속 가장 깊은 접은 사랑을 향하고 있어”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

“소설을 쓸 때 절실한 질문에 빠져 삶과 맞바꿔도 좋다고 여기는 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54)이 소설을 쓸 때 좋은 점은 삶과 맞바꿔도 될 만큼 절실한 질문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설가 한강은 7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장편소설을 쓰는 일에는 특별한 매혹이 있다. 완성까지 길게는 7년까지 걸리는 소설은 내 개인적 삶의 상당한 기간들과 맞바꿈 된다”며 “그렇게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장편소설을 쓸 때마다 질문들을 견디며 그 안에 산다.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을 완성하게 된다”면서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변형된 나는 그 상태에서 다시 출발한다. 다음의 질문들이 사슬 또는 도미노처럼 포개지고 이어지며 새



한강 작가가 7일(현지 시각)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스시

소설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강은 ‘채식주의자’를 썼을 때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골몰했다.

‘바람이 분다, 가리’를 집필할 때에는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삶과 세계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

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는가. 생명으로 진실을 증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물었다고 했다.

‘희랍어 시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이 덧없고 폭력적인 세계 가운데서 인간의 가장 연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이어 ‘소년이 온다’ 집필 작업을 하던 시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진을 보며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선한, 혹은 악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양립할 수 없는 질문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회상했다.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한 2021년 가을까지 질문들의 국면은 계속해서 변하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글 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첫 소설부터 최근의 소설까지, 어쩌면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접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는 고백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현대면세점, 고용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현대면세점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현대면세점은 ▲타임 리워즈 제도(유급 반차차 사용권)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육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정민 현대면세점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현대면세점



유한양행, 북한 출생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

유한양행은 지난 6일 유한양행 본사 대강당에서 유한재단이 ‘2024년도 북한 출생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유한재단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추천 선발된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각 1년치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유한양행



동아쏘시오홀딩스, ‘우수 자원봉사자 기업’ 표창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5일 서울시 동대문구로부터 ‘우수 자원봉사자 기업 부문’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나무심기 등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오무한 윤리경영실장(오른쪽)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제주항공, CCM 서비스 ‘소비자 대상’ 수상

제주항공은 6일 한국소비자학회 주관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 17회 소비자 대상’에서 ‘CCM 서비스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김경원 제주항공 커머셜전략실장(가운데)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경동나비엔,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경동나비엔이 보일러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박성근 경영관리총괄임원(오른쪽)이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과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지엠한마음재단, 전국 곳곳에 김장김치 나눔

헥터 비자레알 이사장 등 참여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기를”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이하 한마음재단)는 7일 GM 협신회와 함께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총 200박스의 김치를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사회 복지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한마음재단 이사장과 토미 호세아 GM 해외사업부문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GM 구매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GM 협신회 문승 회장이 참석했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김장김치 나눔은 GM이 협력사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을 지원하기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7일 GM 협신회와 함께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헥터 비자레알(오른쪽부터) 한국GM 사장 겸 한마음재단 이사장, GM 협신회 문승 회장, 토미 호세아 GM 해외사업부문 구매부문 부사장, 방선일 한국GM 구매부문 부사장이 김치를 담고 있다.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절기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라며 “GM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장김치 행사를 위해 GM 협신회에서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더 큰 따뜻함과 건강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경희사이버대, 해외 기증 도서관 후속지원 나서

경희희망클럽, 뚝틀라 초교 방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경희희망클럽이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인근 뚝틀라 초등학교를 방문해 2018년에 건립·기증한 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경희희망클럽은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윤병국·임근욱 교수와 학생들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로, 캄보디아 뚝틀라 초등학교와 15년 이상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며 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경희희망클럽이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 인근 뚝틀라 초등학교를 방문해 2018년에 건립·기증한 도서관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후속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경희사이버대

인해 중단됐던 현지 방문을 재개하며 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가 후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윤병국, 임근욱 교수는 “이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

한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는 경희학원의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

승실대 이윤재 신임총장 선임

학교법인 승실대학교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학과 이윤재 교수(사진)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신임총장은 오는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이다.

1956년생인 이윤재 신임총장은 승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년일리노이대학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거쳤다. 1991년부터 승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역임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회장, 신용보증기금 사외이사, 중소기업연구원 이사, 재단법인 중소기업인 희망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부음

▲정추희(전 부산일보 상무)씨 별세, 옥명자씨 남편상, 정윤주·정재익(SK하이닉스 부장)씨 부친상, 장혜경씨 시부상, 윤후의(전 전남 무안경찰서장)씨 장인상 = 8일 오전 5시55분,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51-610-9677

▲김용태씨 별세, 장해자씨 남편상, 김대욱(키움증권 S&T부문 상무)·김현마·김경미·김기미(늘결에 구강내과 치과원장)씨 부친상 = 7일,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053-258-4444